

불자 세상보기



고 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5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를 다녀왔다. 이 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가 위축된 가운데 신계사 복원을 기념하는 법회는 매년 열렸다.

가을 추수철이라 북녘 들판에는 가을 걷이가 한창이었다. 남측 들녘은 기계로 수확이 한창인 반면 북측 들녘은 협동농장 근로자들이 나와 벼 베기에 한창이었다. 멀리 우마차도 보였다. 벼 베기만 봐도 남과 북의 국력 격차를 느낄 수 있었다.

북녘 풍경은 한가로웠지만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남측의 5·24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것처럼 보였다. 한창 단풍절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국제관광지구에는 관광객을 볼 수 없어 적막했다.

장기 방치된 관광시설과 버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 현 정부에서 새로운 동

력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다. 이제는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남과 북의 지도자 교제와 함께 주변 국가들에서의 권력교체가 마무리되는 새해가 오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한 남과 북의 새 지도부는 관계복원을 위한 동력 찾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개 폐격사건, 천안함-연평도 사태, 5·24조치 등 남북관계에는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많아 짧은 시간에 관계복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누적된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남측의 새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남북관계가 비정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새 지도자는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교류 활성화, 인도적 지원 제공,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이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 하

나 새로운 대북정책 또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새 지도자는 초당적 협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새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합의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합의'를 만들고 이에 기초해서 남북 간 평화협력을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는 남북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음으로 이러한 합의들을 되살려 남북연합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합의를 완전히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새로운 남북기본합의를 만들고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지도자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경제발전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요소란 점을 인식하고 갈등관리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경분리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정경분리를 내세운다고 해도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전술로 불후보들이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 하

정치적 과고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원칙, 관민분리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관광개 폐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고,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조치'로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경협사업이 전면 중단된데 따른 남북경협사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협사업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경협을 지속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남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와 압력에다 불구하고 북한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수위를 높였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이나 시혜차원을 넘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데 비해 개성공단사업이 지속할 수 있는 데는 호혜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차기 정부는 개성공단의 사례를 확대 적용하여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과 북한의 대남의존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 찾기

社說

새로운 신행 트렌드를 기대한다

'부처님 교화공원'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신행·포교도량이 문을 열었다. 화성 신흥사원의 야산을 공원화 한 '부처님 교화공원'은 2008년 시작해 최근 조성을 마친 대작 불사로 규모만 18,500㎡(5,600평)에 이른다. 재원도 44억 원이 투입됐다.

'부처님 교화공원'은 부처님 초전 범부부터 제1차 경전 결집까지 총 13장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처님 팔상성도, (부모은중경)도 석판으로 꾸며졌다. 조성된 석상 앞 안내판에 서면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경전의 법문도 들을 수 있다.

태양광 조명을 통한 친환경 불사와 부처님에게 올리는 헌화의 의미를 담은 야생화 조경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 같은 시각과 청각의 조화는 40년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 온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의 원력의 집대성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목표에 이르면 안주하기 마련이지만 스님은 변화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보인다.

무엇보다 공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고, 교화 이야기를 알아가는 도량은 한국불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불사다.

평생을 어린이 청소년 교화를 해온 성일 스님은 "부처님의 교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희망찬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화성 신흥사는 공원을 가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족 해체의 시대, 온 가족이 모여 부처님 법을 만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도량이 되겠다는 것이다. 화성 신흥사가 이끌 새로운 신행 트렌드를 기대해 본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개신교

2010년 10월 이맘때다. 서울 봉은사 법당에서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하는 동영상 공개돼 파문이 커졌다. '찬양인도자 학교' 주님의 향기 6조 소속이라고 밝힌 젊은이들이 봉은사 대웅전 안, 미륵전 앞 법당 앞 등에서 "우상은 무너지고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예배를 했다.

이 동영상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개신교가 조직적으로 사찰에서 팽파리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결국 찬양인도자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은 봉은사를 찾아 사과까지 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지만, 개신교의 작태는 여전하다. 10월 14일 서울 봉은사 경내에서 한 사람이 '부처님 계신 곳 좋은 만남'이라는 제목의 CD를 배포했다. 종무원들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CD를 재생하니 신성중 총현교회 前 담임 목사의 설교가 담겨 있었다. 설교라는 것도 신 목사는 자신이 본 지옥에서 부처님과 공자, 유방 스님들이 있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봉은사 측도 "2010년 봉은사 팽파리 사건

에 이어 이런 지능적인 선교활동이 펼쳐져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에는 40대 목사가 대구 동화사에 침입해 탕화에 낙서를 하고 청수 그릇에 방뇨한 한 해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은 사찰에 회자됐고,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 기독교계가 동화사에 사과하기도 했다. "성령이 이끄는대로 행동했다"며 해불을 저지른 목사는 결국 법정 구속된 상태다.

자신의 종교 교리를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행위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 종교를 존중하고, 상식이 허용하는 선에서도 포교와 선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같이 이웃 종교를 기만하는 공격적 선교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할 법이다.

잇물만 하면 발생하는 해불사건, '어물전 망신은 끝투기가 시킨다'고 했다. 일부 개신교도로 인해 선량한 종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들의 자성을 다시 촉구한다.

사부대중 갈림



범음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삼성그룹, 1938년 3월 고 이병철 회장이 세운 삼성상회로 출발하여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그룹은 무역·기계·조선·건설·전자·화학·섬유·제지·유통·금융·서비스·식품·문화예술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컨설팅 회사인 인터브랜드가 최근 발표한 '세계 100대 베스트 브랜드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9위로 뛰어올라 아시아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며, 문화재단, 생명공익재단, 복지재단, 호암재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사회에 인문학적 가치의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 거대한 삼성그룹을 경영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부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상과 관계하고 있다. 단지 한

국인이라는 이유로 애플과의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하기를 바란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기업가, 특히 한국의 재벌에게 솔직히 학자나 종교인에게 요구하는 정도의 도덕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예로부터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장사하는 이들에게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었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써 공존공영의 윤리를 지켜야 할 책임은 경영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최소한 이웃에게, 그리고 공적 개념을 갖는 지역공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조계사 코앞 1,700여 평의 대지위에 15층에서 20층 규모의 대형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란다. 이 소식은 지난해부터 나돌더니 근래 사실로 확인되었다. 역사문화지대의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소위 '딴지'를 걸지 않는 것은 모두가 그곳을 공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이윤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문화재보호법 등 법률적 관계와 행정기관의 허가를 운운하는

것은 평범한 이들에게도 지탄을 받는 매우 저급한 행동이다.

현장에 대한 공간인식, 역사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을 갖추고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삼성이란 글자의 대기업에서 조계사-인사동 지역에 대형호텔을 건축해서 운영한다는 발상 따위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도 원석 자체보다는 원석을 어떻게 가공하여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해 내놓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의 정도가 달라진다. 아름다운 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주변의 경관이다. 이 말은 거꾸로 주변의 경관 여하에 따라 그것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생명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문화재나 보호시설 주변의 건조물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 제아무리 현대식의 번듯한 호텔건축물이라 해도 역사의 향기가 짙게 배인 전통문화와 지역이나 교육시설의 주변에 위치한다면 그 자체가 문화와 교육에 대한 테러요, 우리 사회 공적 자산에 대한 침해다.

윤인의 삼성 호암미술관은 전통시대 의 양품을 방불케 하는 고 이병철 회장

의 묘소가 있다. 삼성이 그 소유의 토지 내에서 자신의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무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삼성은 이러한 보호개념을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왜 확대하지 않는가? 자신들이 소유한 문화재를 그저 세금포탈이나 비자금 세탁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그룹은 민간으로서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 호암미술관과 그 수장고에 보관 중인 문화재에 대한 공식 통계가 공개된 적은 없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보유한 문화재들을 낱알이 공개해서 민족문화유산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

조계사-인사동 일대는 가시적인 담장이 없을 뿐이지 보호지역으로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목시적 마음의 경계가 있는 지역이다. 문화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경영자라면 결코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삼성이 이 지역에서의 호텔 신축을 없던 일로 하기를 바란다.

'삼성그룹'이 천박해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동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케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11월 18일 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원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청경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